

海外業界動向

금년 반도체 세계수요 588억\$, 7.8% 증가

'92년의 세계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588억불(약 7조 4,600억원), 일본시장은 엔화 기준으로 동12.4% 감소(달러화 기준에서는 7.0% 감소한 약 2조 4,700억엔(195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STS(세계반도체 시장 통계)는 최근 반도체의 제품별, 지역별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의 반도체 시장 예측을 발표했다. 동예측은 최근 미국 보스톤에서 개최된 추계시장예측회의에서 정리된 것이다.

WSTS는 세계의 주요 반도체업체 61개사가 가맹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관한 세계적인 통계기관이다. 동예측의 배경인 세계의 거시적 경제동향은 미국이 '91년, 구주가 '92년에 바닥세를 보이고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92년에 바닥을 드러냈으나, 본격적 회복은 '94년 이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의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90년을 피크로 '91년은 8.1% 증가로 회복되었지만, '92년은 7.8% 증가로 성장률은 다소 하락, '93년에 11.9% 증가하여 피크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후 '94년에 9.3% 증가, '95년에 6.9% 증가로 신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92년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4분기가 0.4% 증가, 2/4분기가 3.5% 증가 실적에 대하여, 후반은 3/4분기가 6.5% 증가, 4/4분기는 1.4% 증가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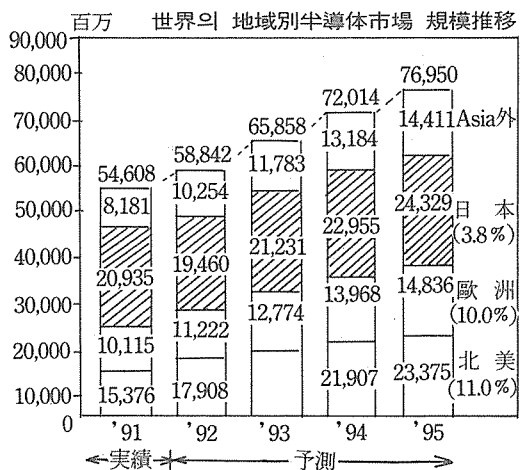
일본시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92년은 엔화 기준으로 12.4% 감소한 약 2조 4,700억엔으로 후퇴 그 후는 '93년에 7.1% 증가로 회복, '94년에 8.1% 증가로 피크를 맞이

할 것으로 보고있다.

'95년에는 6.0%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95년의 세계 반도체시장은 연 9%의 신장이 예측되고 있다. Asia지역의 동15.2%를 필두로 북미, 구주에서 두자리 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3.8%로 저조한 신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92년의 제품별 시장예측(달러화 기준)에서는 MOS메모리 제품이 18.8%증가로 고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MOS 마이크로 제품도 성장률은 각각 0.2%증가, 4.5%증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지탈 바이폴라 제품은 9.0%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 IC 전체에서는 9.4% 증가한 488억불, 디스크리트 전체에서는 0.3% 증가한 100억불이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노동자 생산성, 일·EC보다 우위

미국의 매킨제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최근 세계의 5대 공업국의 생산성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했는데 이에 의하면, 미국 노동자의 생산

성은 주로 경쟁력과 개방된 시장환경에 의해 독일과 일본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보고서를 정리한 한 관계자는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구서독의 노동자보다 12%, 일본의 노동자보다 30% 높다고 지적,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프랑스는 95, 이하 구서독이 89, 일본은 4번째로 77, 영국은 75가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1990년에 미국의 노동자 1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4만 9,600불, 구서독은 4만 4,200불, 일본은 3억 8,200불, 영국은 3만 7,100불을 나타냈는데, 미국은 보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를 규범으로 해야된다고 의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다른 나라의 생산성이 미국보다 높다는 증거는 없다고 표명하였다.

그는 일본에 대하여 자동차와 가전제품 분야의 생산성은 미국을 상회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뒤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애플 컴퓨터의 '92년도 결산

미국의 PC대기업인 Apple Computer가 최근 발표한 '92년도 결산('92년 9월)의 실적에서는 매출 70억 8,654만불 순이익에서는 5억 3,037만불로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동사 회장에 의하면, 제4/4분기중의 "매킨토시" 퍼스컴의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대비 35%, 누계에서도 2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Powerbook" 컴퓨터의 매출이 10억불을 초과하여 초년도의 판매대수도 40만대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과 프랑스회사의 매출이 5억불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강세를 보였다. 「가격경쟁과 불황에도 불구하고 증수증익이라는 결과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그는 결산을 평가하고, 금후의 방향으로써 기타 컴퓨터 환경과의 접속성과 커스터머 솔루션을 겨냥한 "시스템 컴

애플의 결산(1992.9)

(單位：100만弗)

	제4/4분기 ('92. 7~9)		결산 ('91.10~'92.9)	
	92年	91年	92年	91年
매출	1,767.7	1,507.18	7,086.5	6,308.8
순이익	97.6	81.2	530.3	309.8

패니"를 겨냥하고 있다.

IBM, 경영정보 서비스 컨설팅 그룹 설립

미 IBM은 최근 경영·정보기술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세계 30개국에서 제공하는 Global Consulting Business의 개요와 IBM Consulting Group의 조직설립을 발표했다.

IBM Consulting Group은 고객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Group은 IBM이 갖는 세계적인 컨설팅의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오피스로부터 공장현장에 이르기까지의 경영과 기술에 관한 고도의 컨설팅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계에 걸쳐 1,500명에 달하는 동 컨설팅그룹은 ① Management ② Functional ③ Industrial ④ Technology 의 4개 부문에서 12개 전문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일본IBM이 12개 전문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미 월플, 프랑스에 세탁건조기공장 신설

한 소식통에 의하면 3년전에 Philips사의 가정용전기용품 부문을 인수할 미 가전업체인 월플사는 프랑스의 아미안 공장의 부지내에 2억 5,000만프랑을 투자하여 세탁 건조기 생산공장을 신설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장은 1993년말까지 완공하여 1996년에는 연간 생산능력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업원수는 최종적으로 3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現아미안 공장은 전기세탁기의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신공장을 첨가하면 동공장 전체의 연간 생산은 100만대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공장의 한 관계자는 「이것으로써 동공장의 생존은 보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정용 전기업계에서는 금후 점점 합리화의 물결이 치열해져 구주 전체에서 170개 공장이 있는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할 수 있는 공장은 불과 10개 공장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모토롤라의 3/4분기 결산 실적

최근 미국 Motorola는 3/4분기의 경영실적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92년도 3/4분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의 27억 5000만불의 24% 증가한 33억 9,600불로 나타났고 금년도 3/4분기까지의 누계는 95억 9,200만불로 전년 동기 83억 200만불에 대하여 15.5% 성장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 이를 부문별로 3/4분기까지의 누적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부문이 32억 9,900만불로 동 13% 성장, 제너럴 시스템부문이 25억 2,600만불로 동 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불)

구 분	3/4분기		1/4~3/4분	
	'92	'91	'92	'91
매 출	3,396	2,745	9,592	8,302
반 도 체 부 문	1,152	928	3,299	2,708
통 신 부 문	1,035	866	2,951	2,619
제너럴시스템부문	932	655	2,526	2,091
이 윤	129	93	402	328
R&D 투자	332	290	951	841

일본 주요 반도체업체의 생산실적

일본 반도체 업체의 '92년도 상반기 생산실적이 발표되었다. 4MDRAM이 미국 퍼스컴용으로 호조를 추이했지만 일본내 가정용용 반도체가 저미, 도시바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하반기는 , 미국 퍼스컴용의 메모리 수요가 기대된다. NEC, 도시바, 히다치의 3사가 누계결산 전망에서 '91년도 실적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지쯔, 미쓰비시전기는 전년 실적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NEC, 후지쯔, 산요전기가 하향수정되었다. 이번 상반기 실적에서는 히다치, 후지쯔, 미쓰비시전기가 고전을 겪었다.

가정용 반도체의 비율이 높은 도시바는 간신히 전년동기수준을 유지하였다. 각사 모두 가정용 반도체의 둔화로 생산액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작년까지 수요, 가격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 4MDRAM은 미국 퍼스컴 시장의 저가격 전략에 의한 수요확대로 있어서 각사 완전가동 생산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반도체 부진을 극복함으로써 하락도 이 정도에서 끝난 것으로 관계소식통은 내다보고 있다.

미쓰비시전기에서는 수출비율이 8% 상승하였다.

금후의 반도체 주요 전망은 「내년초에 반도체 수요의 회복을 전제로 한 예산설정」(NEC), 「대 미국 메모리, 특히 다 Bit 구성품, 저전압 동작품 등에 기대」(NEC, 일립 등)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황 회복의 기대는 크다. 이 결과, 연초 예상에 대해서는 각사 모두 하향수정했는데 NEC, 도시바, 히다치의 3사는 전년실적에 대하여 2~3%의 신장이 예상된다.

	생 산 액			설 비 투 자		
	상반기실적	연초계획	'92전망	연초계획	수정계획	수정액
N E C	3,800(▲1.3)	8,300(9.4)	7,800(3.3)	800	700	▲100
동 지	3,600(0.0)	7,800(9.8)	7,300(3.0)	800	800	—
일 립 제 작 소	2,750(▲7.0)	5,800(3.5)	5,700(2.0)	600	600	—
부 사 통	1,900(▲8.7)	4,250(5.9)	3,900(▲2.8)	800	690	▲110
삼 륙 전 기	1,780(▲6.4)	3,900(4.0)	3,650(▲3.0)	500	500	—
송 하 전 자 공 업	1,260(▲18)	3,200(10.3)	—	410	약반감	—
삼 양 전 기	1,030(▲1.4)	2,400(10.0)	2,190(0.4)	380	350	▲30
샤 프	995(▲1.5)	2,250(9.7)	2,050(0.0)	300	300	—

일본 전자업계의 대 EC R&D거점 진출 현황

일본의 EIAJ와 JETRO에 의하면, 현재 구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계기업은 730개사이다. 이 중, 전자업체는 140개사로 보여지고 있다. 전자분야에서는 EC위에 의한 덤핑 조사가 빈번하게 실시되게 된 '85년 이후 덤핑과세 회피를 위하여 가전, OA, 부품업체의 구주 현지 생산 진출이 지속되었다.

'85년부터 '90년에 걸쳐서 일계기업의 진출이 급증한 요인으로써 덤핑과세 회피책 이외에 ① 시장통합에 의한 소비확대로의 대응 ② Global 전략의 추진 ③ 중전의 수출지향형에서 현지생산형 기업으로의 전환 등 3가지가 중요한 이유로써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이후, 기업진출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 경제적인 측면외에 대기업의 진출이 포화된 것도 커다란 요인이었다. 생산면에서는 덤핑과세 회피라는 이유에 의한 소규모 생산에서 기업에 따라서는 벌써 양산화의 궤도에 올라, 수출이 주력으로 현지 진출국가에 공헌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74년 조업으로 일계의 진출에서는 선조격인 Sony의 영국 블리젠티 공장은 구주 대륙으로 킬러TV와 브라운관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영국 구주마쓰시다전기도 프린터와 전자타자기로 수출에 공헌하였다.

예전에는 공장의 신규건설이라는 형태가 일

반적이었던 일본기업의 구주진출도 M&A(합병·매수)와 합작으로 구주의 생산거점 확보에 노력한 예도 많다.

생산강화와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부품·원재료의 현지조달 비율의 인상이다. 현재 EC에서는 60~70%의 현지조달 비율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가전업체는 브라운관과 VTR 실린더를 또한 또한 사진기업체는 드럼 등의 핵심부품을 현지생산, 또는 현지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현지조달율을 클리어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지화를 지향하는 일계기업은 '89년경부터 R&D센터와 디자인센터를 설치하는 동향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런데 이 거점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제품개발과 설계사양의 변경 등이 주인데, 일계기업은 기초연구의 투자가 적다는 비난이 구주 현지기업으로부터 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도시바, 히다치, 후지쯔, Sharp가 영국에서 Canon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R&D를 개시, 일계기업의 기초연구 활동이 시동되고 있다.

도시바는 '91년 캠브리지에 설립한 R&D 법인에서 반도체의 양자효과를 히다치도 캠브리지에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각각 연구하고 있다. 히다치는 또한 더블린에서 슈퍼컴퓨터용 언어도 연구중이다.

또한 후지쯔는 「후지쯔 유럽 텔레콤 R&D 센터」에서 통신용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대응,

Sharp도 지난달 개소식을 실시한 「Sharp Europe 연구소」(SEL)에서 광정보처리, 광뉴로컴퓨팅, 병렬처리 등의 기초연구를 시작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쌍방에 R&D 거점을 갖는 Canon은 영국에서 컴퓨터 언어와 화상처리 소프트웨어를 프랑스에서는 화상처리와 Man Machine Interface가 연구 테마이다.

기초연구가 영국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각사 모두 영국이 전통적으로 “연구센터”가 되고 과학자가 모이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주에서도 대규모적인 사업전개를 하고 있는 송하전기는 연구개발 법인으로써 영국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Office Workstations」(OWL)와 Philip와 합작으로 D2B 규격의 개발회사인 D2B Systems, 또한 작년 9월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 「R&D 센터」를 설립, 동센터는 차세대 AV 기기가 연구개발의 대상이다.

또한 Sony는 영국 바진스톡에 방송기기 및 방송방식,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컬러TV와 FA 부문의 R&D 거점이 있는데 「공장밀착형의 R&D를 추진」(Sony)하는 체제에 있다.

이외, 일제기업에서도 기술경쟁으로의 대응, 소비자 및 유저의 기호 등 현지 Needs로의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현지에서 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일본 우정성, 마이크로 셀 이동통신 실현 제안

일본의 우정성은 21세기의 궁극적인 퍼스널 통신으로 일컬어지는 마이크로 셀 이동통신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셀 이동통신 시스템 연구회를 개최하고 검토를 실시했는데 최근 그 결과가 정리되었다. 우정성에서는 시스템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서두르기

위하여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에는 (財)전파시스템 개발센터 속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구미를 추격하기 위해 “마이크로 셀 이동통신 시스템”의 실용화를 추진할 생각이 다.

마이크로 셀 이동통신 시스템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극도로 상승시켜서, 이동통신기기의 소형경량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Zone 반경을 50m~100m 정도의 마이크로 셀과 또한 작은 피코 셀 및 반경 500m 이상의 Macro 셀의 3계층에서 서비스 지역을 구성하여 현재의 카폰, 휴대폰, 코드리스폰, 무선호출기 등을 발전융합하여 세계의 어디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궁극적인 퍼스널통신을 실현하는 제3세대의 이동통신시스템이다.

현재의 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에서는 세계 공통의 공중육상 이동통신 시스템(FPLMTS)으로써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의 세계무선통신주관부처회의(WARC-92)에서는 109~2.2GHZ 에서 함께 230MHZ 폭을 분배할 것을 결정하였다.

구주에서는 EC위원회가 연구중인데 구주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가 작년부터 UMTS(범용이동통신 시스템)의 명칭으로 '96년말에 표준화를 완료, 2000년에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규격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FCC는 PCS(퍼스널 통신 서비스)의 명칭으로 검토중인 시스템에 1.8~2.2GHZ대를 할당할 것을 제안, 일부 민간에서는 실험을 실시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구미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아직 이렇다할 검토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구회는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조기에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1. CCIR의 권고회의 작업 및 구미의 동향에 입각하면 일본도 마이크로 셀 이동통신 시스템과 같은 제3세대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조기에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그 추진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정합이 잡힌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벌써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ETSI(구주전기통신표준화 기구)와 TTA(미국전기통신공업회)등 일본의 표준화 기관인 RCR(전파시스템 개발센터)와의 상호협력 관계의 수립이 중요.

3. 연구개발에 즈음하여서는 이용주파수대의 선정, 고능률적인 음성부호화 방식의 개발, 무선인터페이스의 공통화 효율적인 무선회선 제어의 개발, 이동통신기기의 고도화가 특히 중요.

일본의 해외 가전제품 역수입 활발

일본 전자업체의 해외생산분의 수입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8월 수입금액은 11억 8,000만엔으로 전년대비 7.8%증가를 나타냈다. 이 중 영상기기가 42억 5,000만엔으로 동 25.2%증가 음성기기가 동 0.7% 감소로 나타나 영상기기는 컬러TV가 수량에서 30%증가, 금액에서 28.7%감소를 나타냈다. 8월은 컬러TV의 수입이 변함없이 고신장으로 추이하고 있는데 반하여 VTR은 격감하였다.

1~8월의 누계에서는 영상기기, 음성기기 모두 작년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1~8월의 가정용 전자기기의 수입금액은 1,000억 6,000만엔으로 전년대비 22.6%증가, 영상기기는 374억 6,199만엔으로 33.3%증가 음성기기는 625억 9,936만엔으로 17%증가를 나타냈다.

엔고기조에 부가하여 생산의 분할에 의한 해외로의 생산이전의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히 영상기기의 대폭적인 신장의 배경이다.

1~8월의 수입대수는 컬러TV가 139만대로 동 32.4%증가, VTR이 30만대로 동 46.1%증

가를 나타냈다. 컬러TV의 수입은 8월 실적에서도 90% 이상이 아시아로부터인데 말레이시아,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VTR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8월은 미국과 EC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8월의 수입이 대폭감소된 것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40%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VTR도 보급형 Hi-Fi형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생산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의 VTR시장의 회복 정도에 맞추어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T, 일본, 홍콩, 필리핀에 서비스

영국의 통신서비스업체인 BT사는 최근 일본, 홍콩 등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Global Network Service(GNS)를 개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GNS는 국내와 국제통신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디지털 네트워크의 관리운영서비스이다. 고객이 소유하는 통신설비를 관리, 네트워크 응용서비스(Data전송, 전자 Mail, 전자결산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BT는 '87년 12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에서 최초로 GNS 서비스를 개시, 그 후 홍콩, 뉴질랜드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금년 봄 BT는 연내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7개국에서, 새로이 GNS 서비스를 착수한다는 것을 표명했는데, 7월에 개시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Asia에서 필리핀이 두번째의 실시가 된다.

BT에서는 연내까지 12개국에서의 개시를 지향하고 있는 구주(동구포함)를 GNS 주요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歐洲의 다음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사에서는 년내중에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의 5개국에서도 GNS 서비

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각국의 캐리어(전화사업체)와 합의하여 '94년까지는 세계 60개국에 동서비스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영국의 캠코더 시판 동향

영국에서 캠코더의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단체인 BREMA에 의하면 상반기의 판매대수는 14만 9,000대로써 전년동기 대비 3% 감소를 보였다.

금년은 '89년 이후의 마이너스성장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BREMA에 의하면 캠코더에 한하지 않고 가전제품의 수요가 감퇴하고 있다. 상반기의 컬러TV의 판매는 소형기종이 4.5% 감소, 대형기종은 5.5%의 감소로 나타났다. 현재의 불황하에서는 하반기에도 커다란 기대는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Sony가 27%를 차지했고 이하 Panasonic(송하전기)이 18%, JVC(일본Victor)와 산요가 13%, Canon이 10%의 순서였다.

중국, 가전생산 대국으로 부상

중국의 가정용전자·전기제품의 생산이 일부품목에서 세계에서 최대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공업생산은 작년 '91년도 순조롭게 확대되어 "90년에 대하여 14% 증가한 2조 8,225억엔에 달했고, 그 중 기계공업은 21%의 신장을 보였다. 가전제품의 생산대수는 새로운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작년 1~10월 전탁, 라디오 카세트의 전자기기, 세탁기, 전기밥통, 선풍기의 자가전 상품 등의 생산이 세계최고의 생산을 달성하고 있다.

라디오 카세트는 2,500만대 생산으로 일본과 동남아 각국을 상회하고, 세탁기는 570만대이며, 미국의 '91년의 연간 생산량 62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밥통이 800

만대, 선풍기가 5,400만대는 타국을 크게 능가하는 숫자로 보여진다. 또한 전탁은 작년에 5,000만대 정도를 생산하여 태국의 약 3,200만대를 크게 능가하였다.

이 외, 냉장고는 1~10월에 420만대를 생산하여 일본에 이어, 작년에 720만대를 생산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컬러TV는 960만대를 생산했는데, 연간 1,340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가정용전자·전기기기의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11억 6,000만명으로 세계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대의 요인이다. 이어서 수출확대의 방침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그 유력제품으로써 전자기기 제품을 책정하고 있는데 전탁, 라디오 카세트 등은 일본, 홍콩 경유로 해외 수출이 확대 일로에 있다.

또한, 이 해외시장 판매에서는 풍부한 노동인구, 싼 임금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금후 세계최대의 내수시장과 함께 해외를 겨냥한 생산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작년 수출액은 10% 증가한 719억불을 달성했고, 무역흑자폭은 2년 연속 80억불을 유지했다.

수출품목은 의류가 76억 8,000만불(구성비 10.7%) 식품·식용동물 57억 6,000만불(동 8%)이 중심인데, 전자·전기기기는 아직 적다. 그러나 작년초 EC로부터 중국제 컬러TV, 비디오 테이프가 반덤핑과세의 대상이 되는 등, 해외로부터의 견제가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금후 하이테크 기기의 생산을 겨냥하여, 벌써 VTR, OA기기의 생산을 착수했는데, 가전제품 이외에도 생산의 확대를 지향할 것이라고 한다. 전자기기의 대형산업인 컬러TV에 이어서 VTR에서도 유력 생산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전생산대국"에서 "전자기기생산대국"으로 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